

# 이슬람 테러리즘과 대테러 전쟁에 관한 고찰

이종원(숭실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이슬람 테러리즘과 그 이론적 근거

1. 이슬람 테러리즘
2. 이슬람 테러리즘의 이론적 근거
  - 1) 이슬람 근본주의
  - 2) 지하드

## III. 테러에 대한 응징은 도덕적인가 ?

1. 대(對)테러전쟁은 정당한가?
2. 테러와의 전쟁이 남긴 결과
3. 전쟁의 비도덕성

## IV.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

1. 용서의 윤리
2. 관용의 윤리
3. 샬롬(Shalom)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실현
4. 사랑과 정의의 세계질서 구축

## V. 나오는 말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slamic Fundamentalism and what values radical Islamic Fundamentalists hold. Also it is to criticize the war on terrorism which the USA started. To achieve these aims, I will survey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and the idea of the Jihad. I will propose a realistic solution to the problem of Islamic Fundamentalists' Terrorism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Terrorism is an act where terrorist enforce radical terror, fear and anxiety on people to achieve their political purpose. Hopeless Muslims expose their rage and frustration in a radical method through suicide bombings in the name of a Jihad.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provided unrecovered injury, fear and panic to the world in the form of indiscriminate violence and vulnerability of the innocent. We recognized the nature of human's destruction from the September 11th.

The war against terrorism that America adopted after September 11th is the wrong solution. The result of the war is more terrible than terrorism.

Islamic Fundamentalism is an idea or movement that keeps Koranic teachings and practices it in common life.

A Jihad justifies their radical and ruthless terrorism by Islamic Fundamentalists. However, The Great Jihad was identified as the internal Jihad or struggle against one's soul in the practice of righteousness.

Therefore, we must analyze the distorted ideology in radical terrorism and recover the original meaning of Jihad. Spontaneously, we must correct western prejudices and the wrong viewpoint toward Islamic Fundamentalism and Jihad.

Tolerance and respect are good elements to overcome the prejudice and self righteousness like as Fundamentalism. We must also correct the international injustice system and explore ways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together. We must teach and practice the love of life in the basis of the idea of respect for life.

**Key words:** Islamic Fundamentalism, Terrorism, War against Terrorism, Jihad, Violence, Tolerance, International Justice.

---

## I. 들어가는 말

테러리즘(Terrorism)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측면에서 약자가 정당한 방식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정상적, 극단적인 폭력행위이다. 테러리스트(terrorist)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테러(terror) 즉 공포라는 기제를 사용한다. 즉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표출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9·11테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9·11테러는 기존의 테러와는 달리 국제적인 조직망을 형성하여 장기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가공할 대량살상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의 서막으로 평가된다.<sup>1)</sup> 이는 테러리즘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테러리즘의 양상은 불의한 소수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무고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고 희생제물이 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인륜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통해 방영된 육성 테이프에서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자행한 공격으로 적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치하했다. 이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

1) 최병두는 9·11테러를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전주곡 또는 새로운 지정학의 서막으로 평가하였다. 최병두,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생각의나무, 『당대비평』 18호 2002년 3월, 198쪽.

이다.

테러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미국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전쟁을 택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은 와해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에는 전쟁 전보다 더 많은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아프간 전쟁 직후 미국에서는 탄저균이 퍼져 세균전, 생화학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

본 소고에서는 9·11테러사건을 중심으로 이슬람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선택된 대(對)테러전쟁의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이슬람 테러리즘과 그 이론적 근거

### 1. 이슬람 테러리즘

이슬람 테러리즘의 기원은 십자군 전쟁 당시, 기독교 군대 대장과 미온적인 아랍 대장들에 대한 광신세력의 테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이슬람 광신세력들은 테러범들에게 하쉬쉬(Hashishi)<sup>2)</sup>라는 마리화나 일종인 마약을 먹여서 환각상태에서 암살하도록 했다.

현대의 이슬람 테러리즘은 팔레스타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sup>3)</sup> 소련의 붕괴이후 아랍 국가들은 이

2) ‘하쉬쉬’라는 어원에서 영어의 암살한다(assissinate)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3) 이슬람은 전 세계인구 62억의 21%에 달하는 13억의 교세를 가지고 있으며, 점점 더

스라엘과의 분쟁에서 지지기반을 잃었으며, 걸프전의 패배로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자각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비대칭적 구도(Pax-Americana)는 이슬람 세력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일부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 서구세력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테러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하드(Jihad)라는 이름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자살테러를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9·11테러이다.

9·11테러는 19명의 테러리스트가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이 항공기를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에 자살 충돌시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62개국의 무고한 시민 2,749명이 사망하고 7,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모두 붕괴되었고 미국방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sup>4)</sup> 이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 보다 더 큰 피해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sup>5)</sup> 강봉구는 9·11테러는 납치한 비행기를 무기로 대량살상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복합테러리즘(complex terrorism)의 성격을 지니며, 테러의 조직과 활동무대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치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테러리즘(transnational terrorism)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sup>6)</sup> 당시 사건을 도모한 테러리스트들은 극도의 적개심에 바탕을 두고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살테러를 감행하였다.

---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슬람은 184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구 세력과 나란히 양대 세력권을 이루고 있다.

- 4) 안영섭, <국제테러리즘과 국가안보>, 『북한』 394호, 북한연구소, 2004년 10월, 94쪽. 최진태,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서울: 대영문화사, 2006), 24쪽. 휘발성이 큰 연료를 가득 채운 비행기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미사일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테러리스트들은 여객기를 탈취하여 세계무역센터에 돌진하는 자살테러를 감행하였다. Jonathan Barker, *The No-Nonsense Guide To Terrorism*, 이광수, 『테러리즘 폭력인가 저항인가』(서울: 이후, 2007), 27쪽 참고.
- 5) 9·11테러는 최소 4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릴 정도로 신중하고도 은밀하게 준비되었다. 최진태,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59쪽.
- 6)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2002년 12월, 151쪽.

이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으며, 이슬람세력의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자살테러를 택했던 것이다.

## 2. 이슬람 테러리즘의 이론적 근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 있다. 자신들의 테러행위는 신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테러는 이슬람의 근본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량 살상의 반인륜성이나 사람들의 도덕적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

### 1) 이슬람 근본주의

빈 라덴과 알 카에다(al Qaeda)와 같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근본주의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테러행위를 정당화한다.

#### ① 이슬람 근본주의의 기원

이슬람적 생활방식의 엄격한 적용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였다.7) 이슬람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란 쿠란의 가르침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운동으로서,8) 이슬람

---

7) 무슬림들은 다음 다섯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첫째,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는 신앙고백(Shahadah 샤하다)을 해야 한다. 둘째, 하루에 메카를 향해 다섯 번씩 기도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의무(Zakah 자카)로서, 자신들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매년 수입의 1%를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 넷째, 라마단의 금식(Sawm 사움)으로, 이슬람 음력 9월(Ramadan)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 음료, 담배, 성관계, 욕설, 화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성지순례(Hajj 하지)로서, 평생에 한번은 성지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

8)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전통 기독교 세계관이 붕괴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1920년대 미국 복음주의자들 중에 성서를 문자대로 믿는 것을 넘어 세속

율법(sharia)을 현실에 적용하고 이슬람의 정치, 사회 제도에 따른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근본주의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제시되고 실천된 믿음의 원리(fundamentals), 즉 이슬람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었는데, 이러한 이슬람 국가들의 점진적인 쇠퇴는 이슬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서구의 일방적인 경제적 영향과 문화적 침투로 인해 이슬람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입장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슬람의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은 미국과 서구적 가치관에 대한 강한 불안과 저항을 표출하면서 근본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70년대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은 근본주의가 표출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호메이니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였다. 그는 특히 기독교와 세속주의를 대적자 혹은 불경건한 세력으로 간주하였으며, 서구문명을 세속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하여 적대시하였다.<sup>9)</sup>

## ② 이슬람 근본주의의 특징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본질을 오염시키는 지배자들을 축출하고, 이슬람의 본질을 수호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희망하였는데,

---

적인 사회변화에 호전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1940년대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전통적이고 급진적인 무슬림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부르게 되었다.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문총』 23권 1호, 2002년 8월, 4쪽. 이와 비슷한 개념들로는 이슬람 급진주의(Islamic Radicals), 무슬림 근본주의자(Muslim Fundamentalists), 이슬람주의자(Isramists), 이슬람 개혁주의자(Isramic Revivalists) 등이 있다.

9) 후쿠야마에 의하면 근본주의자들은 서구의 정책에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화과정 전부를 폐쇄적으로 거부한다. F. Fukuyama, <9 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세계경제연구원 2003년 2월, 169쪽 참고.

그들은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 보다 폭력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sup>10)</sup> 그리하여 그들은 투쟁수단으로서 지하드를 선포하고 무차별적인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의 이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식민지와 후기식민지적 서구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적 전략의 한 부분으로 구현한다. 둘째, 자연 자원(특히 석유)과 정치적 입장(특히 이스라엘과 점령지역에 대한)과 지구화와 원조정책의 이름으로 진행된 경제 정책에 대한 서구의 헤게모니와 서구적으로 경도되어온데 대한 저항에 정점을 이룬다. 셋째, 완전한 이슬람적 정책이 존재하는 예언자의 공동체에 의해 이행되는 황금시대 유토피아로 회귀하려고 한다. 넷째, 그들 정부의 실패에 실망하면서 국민들의 결핍과 물질적 필요에 반응하면서 정부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 봉사들을 제공한다.<sup>12)</sup>

그런데 일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취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대부분의 무슬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투쟁명분은 종교적이지만 사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운동이며 서구 뿐 아니라 이슬람세계 자체 내에서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

10) 정성원, <이라크의 자살폭탄테러-이슬람적 본질의 오염과 그 복원>, 동양사회사상학회, 『동양사회사상』 11호, 2005년 5월, 165쪽.

11)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23권 1호, 2002년 8월, 5쪽.

12) Zayn Kassam, “Can a Muslim Be a Terrorist?”,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29~130쪽. 장병욱은 현대 이슬람 근본주의의 특성을 침투성(pervasiveness), 다중심성(polycentrism), 영속성(persistence)을 띠는 호전성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슬림 종단의 크기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무슬림 공동체에 침투한다. 둘째, 하나의 혁명적 리더십이나 조직적 중심점이 없이 여러 개의 리더십으로 나뉘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다. 셋째, 사회 정치적 과정 속에 침투하여 순환하는 영속성을 갖는다.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9쪽 참고.

## 2) 지하드

### ① 지하드의 종류

테러리스트들은 테러행위를 지하드(Jihad)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지하드는 초기 이슬람 역사에서 이슬람의 통치권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 비 이슬람 지역으로 팽창해 나갈 때 정복과 방어를 목적으로 한 성스러운 전쟁(聖戰)을 의미한다.<sup>13)</sup> 지하드는 유일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의 침략을 방어하거나, 이교도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성스러운 무력수단이었다. 지하드는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투쟁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무력수단으로써 군사 작전을 포함한 일종의 전쟁형태로 이해되었다. 이후 지하드는 이슬람의 무력투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극단적이고도 무자비한 테러행위를 지하드로 보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드는 군사적인 투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 더 강조점이 있다. 카삼(Zayn Kassam)은 위대한 지하드를 의의 실천에 있어서 그 자신의 영혼과 대항하는 내적인 지하드(투쟁)로 해석하였다.<sup>14)</sup> 지하드는 강렬한 노력(intense effort), 전적인 진력(total endeavor), 갈망(굶주림, starving)을 의미하는데, 강렬한 노력은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마음의 노력으로서 내적인 영혼의 도덕적 투쟁을 나타내며, 자아를 이기는 것이다. 둘째, 말의 노력은 이슬람 도덕의 가르침과 교훈을 나타낸다. 셋째, 손의 노력은 이슬람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검의 노력은 신자들

13) ‘지하드’라는 단어는 ‘jaahada’라는 동사의 동명사이고, ‘애씀, 노력 또는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반대하여 투쟁하는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원, <이라크의 자살폭탄테러-이슬람적 본질의 오염과 그 복원>, 159쪽.

14) Zayn Kassam, “Can a Muslim Be a Terrorist?”, 115쪽.

이 꺾박당하거나 그들의 자유가 빼앗기는 상황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적들과 무력충돌이 수반되는 것을 가리킨다.<sup>15)</sup>

위의 네 종류의 요소 중에서 무력투쟁은 최후에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다. 무함마드에 의하면 무신론자와 다신론자가 신의 실체를 인정할 때까지 싸우는 것을 비롯하여 침략자에 대한 방어, 사회정의, 퇴폐추방 및 욕망에 대한 절제까지도 지하드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함마드는 가장 훌륭한 지하드는 칼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6)</sup> 따라서 지하드의 근본 의미는 무력투쟁 보다는 내적이며 영적인 투쟁에 더 비중이 있다.

## ② 지하드의 근본의미

지하드는 이슬람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일치단결시키는 근본이념이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테러라는 극단적인 행위도 불사한다는 급진 사상으로 지하드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였다. 그들은 지하드를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않는 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테러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지하드는 잔인한 피의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만을 초래하였을 뿐, 지하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하드는 극단적인 테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적 정치적 개혁운동을 통해 달성된다. 이슬람의 진정한 회복은 초기의 지하드 정신과 이슬람의 근본정신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드는 이슬람 역사 속에서 초기 이슬람의 원리원칙에 대한 탈 역사적 영원성과 불변성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

15) H. S. Wilson, "Terrorism and Religious", Patricia B. Jung, & S. Jung,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365쪽.

16)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8쪽.

야 하며, 위와 같은 인식은 사회 전반에 대한 샤리아(이슬람 율법)와 지하드의 전면적 적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이슬람의 부흥운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sup>17)</sup> 따라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지하드의 폭력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신들의 테러행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지하드의 근본 의미를 왜곡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 III. 테러에 대한 응징은 도덕적인가?

#### 1. 대테러전쟁은 정당한가?

월리스(Wallis)는 테러 공격의 뿌리는 세계의 궁핍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경제적 정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지역적이며 지구적 힘을 위한 왜곡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야망으로 보았다.<sup>18)</sup> 그는 9.11테러에서 우리가 목격한 악의 얼굴 안에 있는 어둠에 직면할 용기를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지구적 정의를 위해서는 잔혹한 악의 가해자들과의 화해와 양보, 협상이 아니라 그들의 비열한 목적을 분쇄시키는 공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미국은 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고 궤멸시키고 응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미국이 지향해온 패권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최고

17) 황병하, “20세기 지하드의 개념과 성격”, 『한국중동학회논총』 16권 1996년 1월, 154쪽.

18) Jim Wallis, “A Light in the Darkness”, Patricia B. Jung, & S. Jung,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353쪽.

19) 같은책, 354쪽.

정점으로 강화하면서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다. 이는 2002년 발간된 국가안보보고서(National Security Report)에 포함된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에서 잘 드러난다.<sup>20)</sup> 이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미국이 반드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절대적 군사적 우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과 둘째, 미국은 선제공격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UN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선제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전쟁론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당사자가 내세우는 전쟁의 정당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UN의 허가 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미국 스스로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정당전쟁론의 전통을 무너뜨렸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테러리스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점은 대테러 전쟁의 정당성을 희석시킨다.<sup>21)</sup>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고 응징하는 차원을 넘어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 전쟁을 이용하였던 것이다.<sup>22)</sup>

이라크에는 개발되지 않은 석유가 압도적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

---

20) George Soros, *The Age of Fallibility* 전병준 외, 『오류의 시대』(서울: 네모북스, 2003), 168쪽. 소로스는 부시 행정부를 움직이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는 시장근본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를 지지하는 신 보수주의라고 지적하였다.

21) 조너선 바커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도덕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간인 사망자 수가 미국의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으며 불발탄과 지뢰는 아직도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새 정부는 안정되지 않고 테러리스트 군벌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도록 권력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여성이 얻은 자유도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며, 일상적 무법과 불안상태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Jonathan Barker, *The No-Nonsense Guide To Terrorism*, 이광수, 『테러리즘 폭력인가 저항인가』(서울: 이후, 2007)169쪽.

22) 2002년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해 탄도미사일방어제한협정(ABM Treaty)에서 탈퇴했는데,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의 대표적 사례이다. 구춘권,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서울: 책세상, 2005), 146쪽 참고.

일 뿐 아니라 연간 석유 산출량보다 매장량의 비율이 월등한 높은 곳이다. 이라크에 매장된 풍부한 석유자원의 확보는 미국의 중요한 개전사유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23)</sup> 따라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그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 2. 테러와의 전쟁이 남긴 결과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15,00명에 달하는 미군병사의 죽음, 1만명 이상의 부상, 2,00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치렀다.<sup>25)</sup> 이는 전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대테러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NBC방송은 9·11테러 이후 2,929건의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8%인 1,709건이 2004년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26)</sup> 또한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훨씬 더 폭넓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대테러전쟁이 테러억제 보다는 테러확산을 가져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포이만은 대테러전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

23) 석유산출량 대 매장량의 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1:50, 쿠웨이트는 1:115인 반면, 이라크는 1:500이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지표면에 근접하여 매장되어 때문에 채굴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기도 하다. 같은책, 151~152쪽. 미국 내 석유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에 불과하며 미국은 매년 세계전체 석유생산량의 9%만을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 유류소비량의 25%를 소비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미국의 중동석유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슬람 근본주의와의 갈등도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영무, 『국제테러리즘연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574~575쪽 참고.

24)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박인성, <전쟁의 도덕성: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69~71쪽을 참고하시오.

25) Richard Haass, *The opportunity*, 장성민, 『미국 외교정책의 대만격』(서울: 김영사, 2005), 202쪽.

26) 최진태,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72쪽.

하였는데, 첫째, 테러리스트들은 국가도 아니며, 자신들을 드러내는 공적인 빌딩이나 기구들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둘째, 그들은 침투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반자율적인 세포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테러리스트 캠프를 공격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저항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라크에는 현재까지도 테러리스트들과의 갈등과 무력충돌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테러로 인한 미군의 희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테러와의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하게 되어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졌던 동일한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미 국방부의 “2005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5)”에 의하면 향후 미국에 대한 주된 위협은 극단적 테러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long war)으로 규정하였다.<sup>28)</sup> 그러나 소로스는 테러가 드러내는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테러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았다.<sup>29)</sup> 소로스의 지적대로라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자국의 절대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대테러라는 이름으로 국가차원에서의 테러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변명거리를 제공할 뿐이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는 테러와의 전쟁을 외교적 최우선순위에 올려놓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목표는 강대국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있

---

27) Louis P. Pojman,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42쪽.

28) 평화문제연구소, <미국 QDR 2005의 주요내용과 그 함의-장기전이 된 테러와의 전쟁>,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3월호, 2006년 3월, 23쪽.

29) George Soros, 『오류의 시대』, 136쪽.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미국의 힘을 올바른 지도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30)</sup> 다른 나라들을 경쟁자로 보기 보다는 협조자로 만들어 함께 협력하면서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3. 전쟁의 비도덕성

테러행위가 비윤리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와의 전쟁 또한 비윤리적이다. 힘의 논리로 당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특정 테러 행위나 대테러전쟁의 수단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뿐이다. 오직 결과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도 전쟁은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도 그 수단이나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그 정당성은 상실된다.

전쟁을 통한 해결방식은 단기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폭력의 악순환만을 낳게 된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무력의 사용은 새로운 증오심을 만들어 갈등만을 지속시킬 뿐이다. 촘스키는 대테러전쟁 이후 이라크는 ‘네오살리피(neo-Salafi)’라 일컬어지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신병 모집장과 훈련장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31)</sup> 결국 무력 사용이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세계는 힘과 무력만으로 지배할 수 없다. 군사력은 한 국가가 다른 국

30) Richard Haass,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15~17쪽.

31) Noam Chomsky, *Failed States*, 강주현, 『촘스키,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한다』(서울: 황금나침반, 2007), 42쪽.

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인 수단이 고갈되었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sup>32)</sup> 따라서 폭력에 의한 해결은 대항세력이 서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차원의 폭력을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테러리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 1. 용서의 윤리

테러리즘이나 대테러전쟁은 더 큰 폭력과 갈등을 낳게 된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 용서의 윤리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슈라이버는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개념으로서 용서의 윤리를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하는 용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지만, 복수는 포기하는 것이다.<sup>33)</sup> 슈라이버는 용서를 “쓰러린 과거의 악 앞에 마주 서되 보복하겠다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입장을 이해하며, 고난 받은 자들의 편에서 가해자 및 그들의 후손들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진정한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보았다.<sup>34)</sup>

용서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윤리의 핵심이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군중들에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는 군중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들

---

32) Martha Crenshaw, “Responding to Terrorism”, A. F. Lang & A. C. Pierce & J. H. Rosenthal, ed, *Ethics the Future of Conflict* (New Jersey, Prentice Hall, 2004), 41쪽.

33) 이종원, <테러리즘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22집, 2007년 11월, 218쪽.

34) Donald W. Shriver, Jr, *An Ethic for Enemies : Forgiveness in Politics*, (서광선, 장윤재, 『적을 위한 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494쪽 참고.

의 속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다.<sup>35)</sup> 용서는 보복과 복수의 반대이다. 용서는 결과에 대한 합리적 계산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증오가 낳은 분열을 적극적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용서는 무제한적인 부당한 복수를 반대하며, 그러한 복수를 포기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의 극단적인 폭력에 맞서 그들을 응징하거나 보복하기보다 용서를 통해 깨어지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2. 관용의 윤리

타리크 알리는 9.11테러를 미국과 이슬람 근본주의의 충돌, 즉 아메리코필리아(미국숭배증, *americophilia*)와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충돌로 해석하였다. 아메리코필리아는 종교적 심성에 기초한 맹목적 애국주의인 미국숭배증이며, 옥시덴탈리즘은 동양에 의해 날조된 서양을 상징함으로써 미국인과 미국적인 것을 맹목적으로 증오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는 아메리코필리아에 내재한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폭력성과 옥시덴탈리즘에 내재한 이슬람의 정치적 폭력성이 전면적인 갈등국면에 이른 결과로 해석하였다.<sup>37)</sup> 타리크 알리의 분석은 탁월하지만 갈등의 측면

35)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또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수는 형제의 잘못을 무제한적으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여 신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태복음 18장)

36) C. R. Brakenhielm, *Forgivene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43쪽 참고.

37) Tariq Ali, 『근본주의의 충돌』, 428-481쪽 참고.

만 부각시킬 뿐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에드워드 사이드는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는 유럽 중심적 편견과 제국주의적 음모를 밝히면서,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강조하였다.<sup>38)</sup> 오리엔탈리즘에 대항하는 옥시덴탈리즘이나 제국주의 문화에 대항하는 탈식민주의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한 브레진스키는 테러라는 지구적 무질서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서 유럽연합과의 대서양 연대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sup>39)</sup>

반다나 시바는 갈수록 심화되는 비인간화를 폭력의 뿌리로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평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보았다.<sup>40)</sup> 조나단 사크스(J. Sacks)는 종교는 그동안 불화의 원천이었지만 갈등 해결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의 연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희망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41)</sup> 종교는 평화를 안착시키는 데, 그리고 평화의 필수조건인 정의와 자비를 널리 퍼뜨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38) 김준형, 『세계화의 현상과 대응』(서울: 일신사, 2004), 58쪽. 사이드는 서구 근대사회를 이성과 광기의 이분법으로 분석한 푸코의 영향을 받아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으로 재구성하여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광기의 타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동양의 문화와 사상은 서양인에 의해 왜곡되고 날조된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책, 56쪽 참고.

39) Zbigniew Brzezinski, *The Choice*, 김명섭, 『제국의 선택』(서울: 황금가지, 2004), 17쪽 참고.

40) 반다나 시바, “카니발리즘으로서의 테러리즘 - 테러리즘의 생태학”, 생각의나무, 『당대 비평』 18호, 2002년 3월, 150쪽. 시바는 평화는 무기나 전쟁, 폭탄이나 야만성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비폭력을 생존의 명령으로 해석하였다.

41) Jonathan Sacks, *Dignity of Difference*, 임재서, 『차이의 존중』(서울: 말글빛남, 2007), 20쪽 참고.

기독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관용의 정신은 타종교와의 갈등이나 타문화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자원이다.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빌 4:5)”고 강조하였다. 관용의 정신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타종교인들까지도 포용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타자를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관용의 정신이다.

필립(R. L. Phillips)은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종교는 더 이상 배타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종교와의 공통적인 선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다.<sup>42)</sup>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선을 재구성함으로써 전통 이슬람 사회와 더 많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화는 나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타자들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지구촌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복합적인 생명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근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채 타자를 용납하지 않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등과 분쟁만이 되풀이된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 인류가 함께 살아가려면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대표적 사례로 과거 오스만 제국의 밀레(Millet)제도를 들 수 있다.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도록 허용하는 밀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sup>43)</sup> 밀레제도와 같은 관용과 존중이 있는 곳에는 근본주의와 같은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독선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관용의 윤리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42)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16쪽.

43) F. Fukuyama, <9·11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170쪽.

### 3. 살롬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실현

필러(Paul R. Pillar)는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정책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테러리스트들에게 양보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 둘째, 테러리스트들을 그들의 범죄에 대해 정의로 이끈다. 셋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고립시키거나 압력을 가한다. 넷째, 상호 지원하고 연합함으로써 대테러능력을 강화한다.<sup>44)</sup> 필러가 제안하는 이러한 전략들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통로를 봉쇄하고 대테러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카피탄은 테러리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검토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였다.<sup>45)</sup> 테러리즘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같은 현상적인 측면 보다 그 폭력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왜곡된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갈통은 폭력의 개념을 물리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으로 나누었다. 물리적인 폭력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인 가해나 고문, 살상같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폭력인 반면, 구조적인 폭력은 가해자가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개인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가 가하고 있는

---

44) Paul R. Pillar, *Terrorism and U. S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1), Louis P. Pojman,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144쪽 재인용.

45) Tomis Kapitan, “The Terrorism of Terrorism”,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0~61쪽 참고. 포이만은 무슬림 열광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무지와 억압과 같은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Louis P. Pojman,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142쪽 참고.

폭력이라 할 수 있다.<sup>46)</sup> 따라서 테러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을 철저히 이해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단지 테러리즘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덴시크는 갈등의 체제를 분석하면서 갈등의 양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 명시적 갈등, 잠재적 갈등, 해소되지 않은 갈등, 해결된 갈등 등으로 구분하면서 반평화적인 갈등의 사회구조를 성격별, 양태별로 나누어 해결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우리가 주목하고 극복해야 할 갈등은 잠재적 갈등과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 요인들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결책은 성서에서 제시하는 살롬의 정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성서에서 제시하는 살롬의 정신은 단순히 전쟁의 반대만이 아닌, 안전, 건강, 복지, 사랑, 구원, 정의, 질서, 완전함 등 보다 적극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sup>48)</sup> 따라서 평화는 단지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로만 보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개념을 갖는다.<sup>49)</sup> 억압과 착취, 불평등,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폭력과 전쟁의 원인자

46)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서울: 햇빛출판사, 1991), 43쪽.

47)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68쪽.

48) 이삼열, 「신앙세계」, 2001년 11월호. 59쪽.

49)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는 한때 중동 지역 평균치를 웃도는 영양 상태와 교육 수준, 공공 서비스를 누리던 이라크 주민들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1990년 이전에 이라크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천 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 5백 달러 이하로 떨어져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유엔의 2001년 수치에 따르면, 60%에 가까운 이라크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며, 학교 중 80%가 대포 수리를 해야만 했다. 1997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이라크 국민 중 27%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으며, 여성의 70%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Tariq Ali, *The Clash of*

체를 없애는 것이 온전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살림에 기초한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이슬람 지역의 빈부격차의 해소와 정치의 안정, 서구의 대이슬람 정책에 달려 있다. 우선 테러리즘을 발생시키는 가난과 무지, 억압과 부정의와 같은 모순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또한 사회구조적인 폭력 즉 제도적인 억압과 착취, 불평등의 구조를 제거하고, 갈등과 분쟁, 적대감과 미움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요인까지 제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sup>50)</sup>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소외된 이슬람지역에 대한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슬람 지역의 민주화의 온전한 정착,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무모하게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지 않도록 생명 존중사상에 기초하여 생명사랑을 교육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나의 생명이 귀중한 만큼 다른 이의 생명도 귀하다. 성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마태 16:26)”고 말하고 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 공동체가 생명존중사상을 되새기고 생명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

*Fundamentalisms*, 정철수, 『근본주의의 충돌』(서울: 미도, 2003), 265쪽. 이러한 구조적인 폭력이 있는 한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적대적인 반감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제붕쇄와 착취를 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0) 미국이 방대한 원조로 이집트를 범아랍 동맹에서 끌어낸 것이나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오슬로 회담에서 영토와 평화를 교환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테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마샬 플랜형의 대대적인 원조계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백종국, <9월의 테러와 문명충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6권, 15쪽 참고.

#### 4. 사랑과 정의의 세계질서 구축

이슬람 테러리즘은 그동안 서구 제국주의의 착취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서 승전국들이 임의로 중동의 영토를 분할하고 국경을 변경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독립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반면 이슬람 사회는 극도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혼란에 휩싸이면서 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서구 세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후기 식민세계로 종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전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식민지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테러라는 극단적인 탈출구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뿌리내린 극단적 호전주의를 제거하고 이슬람 세계와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구중심의 권력구도를 개편하고 사랑과 정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강자는 지배적 담론구조를 장악하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강자들의 무력사용은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강자 중심의 지배적 담론구조의 허상과 왜곡된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의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한다.<sup>51)</sup> 강대국 중심의 권력구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중심이 되는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몰트만은 굽주림과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범지구적 실천, 억압과 소외로부터의 해방,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범지구적 존중을 통한 새로운 지구촌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지구촌화는 힘의 교만을 버리고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52)</sup>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내몰

51) 이종원, <테러리즘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223쪽.

52) 몰트만, <종말론 지구촌화 그리고 테러리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2년 6월, 213쪽.

있던 부정의한 세계질서를 바로 잡고, 함께 공존하고 상호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sup>53)</sup> 또한 소외된 이슬람 지역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V. 나오는 말

테러는 적은 비용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테러행위는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며 지구촌의 안보와 번영을 붕괴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반면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 보다 더 큰 피해와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테러나 대테러전쟁은 서로 간에 평화적 공존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증오심만을 조장할 뿐이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몰아넣은 근본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파괴적인 무기 대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며, 궁핍하고 소외된 이슬람 지역에 대한 호혜적인 원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슬람 근본주의와 지하드에 대한 서구적 편견과 선입견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슬람의 신학과 역사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슬람 근본주의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슬람의 교리를 왜곡하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근본주의적 세력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53) 배인턴은 평화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들로 첫째, 무장해제를 통해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둘째,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R.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256~257쪽.

이슬람 테러리즘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미국중심의 권력의 비대칭적 역학구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국제정치와 경제 구조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범하고도 확고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대국들이 먼저 자국 이기주의를 벗어나 약소국들에게 양보하고 협의하며 국제적 연대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성서가 제시하는 살롬의 정신은 단순한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 억압과 착취, 불평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살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열린 마음으로 평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서 참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모두가 오만과 독단을 버리고 사랑과 관용으로 섬길 때 살롬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2002년 12월.
- 구춘권,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서울: 책세상, 2005.
- 김준형, 『세계화의 현상과 대응』, 서울: 일신사, 2004.
- 몰트만, <종말론 지구촌화 그리고 테러리즘>, 대한기독교교회, 『기독교사상』, 2002년 6월.
- 박인성, <전쟁의 도덕성: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41집, 2006년 여름.
- 반다나 시바, <카니발리즘으로서의 테러리즘 - 테러리즘의 생태학>, 생각의나무, 『당대비평』 18호, 2002년.
- 백종국, <9월의 테러와 문명충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6권, 2002년 10월.
- 안영섭, 『북한』 394호, 북한연구소, 2004년 10월.
- 여영무, 『국제테러리즘연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햇빛출판사, 1991.
- 이삼열, <신앙세계>, 2001년 11월호.
- 이종원, <테러리즘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22집, 2007년 11월.
- 장병옥,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23권 1호, 2002년 8월.
- 정성원, <이라크의 자살폭탄테러-이슬람적 본질의 오염과 그 복원>, 동양사회사상학회, 『동양사회사상』 11호, 2005년 5월.
- 최병두,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생각의나무, 『당대비평』 18호 2002년 3월.
- 최진태,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2006.
- 평화문제연구실, <미국 QDR 2005의 주요내용과 그 함의-장기전이 된 테러와의 전쟁>,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3월호, 2006년 3월.
-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22권 2호 2001년 12월.

- 황병하, <20세기 지하드의 개념과 성격>, 『한국중동학회논총』 16권 1996년 1월.
- Ali, Tariq. The Clash of Fundamentalisms, 정철수, 『근본주의의 충돌』, 서울: 미토, 2003.
- Bainton, R. H.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New York: Abingdon Press, 1960.
- Barker, Jonathan. The No-Nonsense Guide To Terrorism, 이광수, 『테러리즘 폭력인가 저항인가』, 서울: 이후, 2007.
- Brakenhielm, C. R. Forgivene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Brzezinski, Zbigniew. The Choice, 김명섭, 『체국의 선택』, 서울: 황금가지, 2004.
- Chomsky, Noam. Failed States, 강주현, 『츨스키,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하다』, 서울: 황금나침반, 2007.
- Crenshaw, Martha. “Responding to Terrorism”, Lang A. F. & Pierce A. C. & Rosenthal, J. H. ed, Ethics the Future of Conflict, New Jersey, Prentice Hall, 2004.
- Fukuyama, F. <9·11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세계경제연구원 2003년 2월.
- Haass, Richard. The opportunity, 장성민,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서울: 김영사, 2005.
- Kassam, Zayn. “Can a Muslim Be a Terrorist?”,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Kapitan, Tomis. “The Terrorism of Terrorism”,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ojman, Louis P.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oros, George. The Age of Fallibility 진병준 외, 『오류의 시대』, 서울: 네모북스, 2003.
- Wallis, Jim. “A Light in the Darkness”, Jung, Patricia B. & Jung, S.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 Wilson, H. S. “Terrorism and Religious”, Jung, Patricia B. & Jung, S.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논문투고일: 2008. 4. 30

심사개시일: 2008. 5. 29

심사완료일: 2008. 6. 6